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여성6자회의

환영만찬 축사

2008-9-1
박영숙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오늘 여기에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한국여성지도자들이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회복을 위한 여성6자회의를 여는 환영만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회의는 정부차원의 6자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가일층 긴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의 여성 지도자들이 또한 한자리에 모여 냉전질서를 평화질서로 바꾸기 위한 대화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분쟁이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보다도 여성과 소녀들,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0년 유엔안보이사회가 공포한 1325 결의문을 빌리지 않더라도 분쟁의 예방, 관리, 해결을 위한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뒤늦게나마 여성들의 자각에 의한 동북아의 평화구축을 위

한 협상과 협정과정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선 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이 회의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나선 여성들이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여성들이라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제이차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점령국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로 한국을 분단국가로 만든 이래 지난 60여 년간 한국 사람들이 겪은 아픔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1천만이 넘는 이산가족들, 민족상잔의 후유증인 보기도문 적대관계 심화, 분단으로 인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교육 등에서 불거지고 있는 비민주성의 폐단, 특히 여성들에게 미친 악영향은 여성들이 좌시만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변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 원점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은 민족통일문제를 안보논리와 정권유지에 매여 있는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념과 제도를 초월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에 있어 과감하게 ‘민’의, 특히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자국의 이익 추구에서 자유로우며 무력행사를 거부하며 자식과 남편을 전쟁터로 내몰지 않는, 그리고 사상이나 제도에 매이기보다 생명, 평등,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들이 바로 막힌 장벽을 헐 수 있는 본질적이며 실존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

다고 확신합니다. 그것도 소수 엘리트가 아닌 ‘시민참여형’의 다중의 평화운동이 어느 한 나라에서가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믿기에 이번에 열리는 여성 6자회의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유감인 것은 이번 회의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그리고 북한 여성 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회의가 되지 못하는 시점에 개최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단된 상황에서 발생한 일임을 감안할 때 하루속히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임은 더욱 자명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북녘하늘 밑에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북의 자원이 통합되는 날 이런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세상을 여성의 힘으로 일구는 일의 첫발을 떼는 오늘의 이 모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